

##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박성혜\* · 윤증희\*\*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6학년생 270명과 중학교 3학년생 27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및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학생이 지각하는 부와 모 각각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을 묻는 질문지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독립변수(성별, 학년, 학교성적, 자아존중감, 가정의 경제수준, 부와 모, 각각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를 투입한 회귀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모델이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을 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다음으로 학교성적,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의 순이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중학교로, 또 중학교 3학년생이 고등학교로 전이해 가는 시점에서 부와 모의 양육신념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 변인보다는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나 학교성적과 같은 변수가 학교적응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증진이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한다는 제언을 하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양육신념, 양육행동

\* KCCEB(Korean Community Center of the East Bay) 연구원, 제1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yoon4472@dongduk.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과 환경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적응요구가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 요인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공간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적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응은 인간이 일상생활의 요구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통한 심리적 과정(Weiten, Dunn & Hammer, 2012)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적응이란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동이 학교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 즉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학교라는 세팅 안에서 적절히 반응되고 행해질 수 있을 때에 학교적응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앞으로 새로운 학교로 진학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이 이들의 발달에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은 중·고등학교 생활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근래에 와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왕따나 학교부적응 문제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그들의 발달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의 성과 연령에서부터 학업성적(임정순, 1993; 한미라, 1997), 자아존중감(김연화, 2012; 장경문, 2007, 2011), 자기효능감(유희옥, 2012; 한희진, 2012), 자아개념(김분, 최연실, 2012), 자아탄력성(류민정,

2012; 박상희, 2010; 방수산, 2008; 이병희, 2011; Bonanno, 2004) 등 개인적 요인이 집중적으로 탐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구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 태도(김연화, 2012; 장경문, 2007), 가족건강성(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사회적 지지(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Gifford-Smith & Brownell, 2003) 등 환경 요인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지고 있다(Berndt & Keefe, 1995).

그러나 이와 같은 단편적인 변인 탐색보다는 학교적응이나 부적응의 원인을 다차원적인 환경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유연승(1998)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개인적 요인(예: 감정조절능력 부족, 정체성 확립의 실패), 가정환경 요인(예: 가정불화, 생활 분위기, 부모의 요구수준, 사회, 경제적 문화배경, 결손가정, 갈등가정, 빈곤가정), 학교환경 요인(예: 학교교육의 환경문제, 교사들의 태도문제, 교육과정의 정상화 문제), 사회환경 요인(예: 삭막한 주거환경, 반교육적 형태와 마스크) 등이 학교 부적응을 불러 올 수 있다 하였다. 유연승과 같은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이나 환경 변인의 단편적인 면만을 살펴보았을 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밝힌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중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면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많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중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작용함이 밝혀짐으로써 이 변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Uhrlass, Grosser & Gibb, 2008).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자기의 총체적인 측면(Swann, Chang-Schneider & McClarty, 2007)이며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Do, 2008). 특히, 학교적응 중 학업적응과 관련된 학업역량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순혜, 2010)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라는 전환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은 인간의 지적발달과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와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곳이다.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양육신념과 이에 따른 양육행동일 것이다(Bornstein & Cote, 2004; Rubin & Chung, 2006).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 때 높다는 연구(민하영, 권기남, 2004)에서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자녀의 정서, 사회 또는 행동문제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지지와 애정표현, 수용과 일상생활의 관심이 적을수록, 합리적인 설득을 통한 훈육이 아닌 가혹한 통제와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행동이 많을수록, 자율성을 억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허용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장미애, 2004). 이와 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와 모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을 따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은(박성연 외, 2008, 2009; 이은경, 2010; 장경문, 2007, 2011) 부와 모가 아들과 딸에게 갖는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함께 또 따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은 물론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를 보이며(이은미, 박인전, 2002)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하고(Simons-Morton & Crump, 2003)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구자은,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성적,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 변인(가정의 경제수준, 부와 모 각각의 양육신념 및 양육행동)들이 이들이 처한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떠한 상관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차이점이 있다면 해당 발달단계에 적합한 모델을 각각 규명하고, 없다면 두 시기 모두에 해당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공통적인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설명적 연구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성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초중등생의 가정환경 변인(가정의 경제수준, 부와 모 각각의 양육신념과 양육 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270명, 중학교 3학년 270명 총 54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아동의 학년과 성별은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형제순위의 경우 전체 85%가 첫째나 둘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57.1%가 대졸 이상인 반면, 어머니는 절반 이상이 고졸이었다(51%). 연구 대상 대부분이 핵가족이며(90.9%), 대부분 중간 정도의 경제수준(83.1%)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성적이 중이라고 지각한 학생들이 전체의 6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2. 측정도구

### 1) 학교적응 척도

초중등생의 학교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은건(2003)이 사용한 학교적응 척도를 바탕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용어 사용 수준에 맞게 3인의 아동발달 및 복지 관련 전공자가 문항내용을 검토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우관계적응 10문항과 학업적응 10문항의 총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교우관계적응, 학업적응, 전체 학교적응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71, .80, .79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540)

특 성	구 분	빈 도(%)	특 성	구 분	빈 도(%)
학 년	초등 6학년	270(50.0)	가족형태	핵가족	487(90.9)
	중학 3학년	270(50.0)		대가족	49(9.1)
성 별	남	259(48.0)	가정의 경제수준	상	39(7.4)
	여	281(52.0)		중	435(83.1)
				하	50(9.5)
형제순위	외동	63(11.7)	학교성적	상	112(21.1)
	첫째	233(43.2)		중	46(65.2)
	둘째	225(41.8)		하	73(13.7)
	셋째 이상	18(3.3)			
아버지 학력	초졸	5(1.0)	어머니 학력	초졸	8(1.6)
	중졸	8(1.6)		중졸	15(3.0)
	고졸	176(35.2)		고졸	254(51.0)
	대졸	263(52.6)		대졸	196(39.4)
	대학원졸	48(9.6)		대학원졸	25(5.0)

## 2) 자아존중감 척도

초중등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정은경(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 4점 척도로,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이 섞여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다.

## 3) 양육신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신념 척도는 개방형 면접 자료에 근거해 개발한 문항들 외에, 이원영(1983)의 '자녀교육관' 문항, 김지신(1996)의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문항, Siegel(1985)의 어머니의 신념과 가치 Q-sort(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 문항, 안지영(2000)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3인의 아동발달 및 복지 관련 전공자들이 함께 검토하여 문항 내용을 초중등생의 용어사용 수준에 맞추어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양육신념 척도는 세 개의 하위요인, 즉, 인성 대비 지적성취 강조(14문항), 성숙 대비 환경 강조(10문항), 전체 대비 개인 강조(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문항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보다는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것이며, 성숙보다는 환경, 전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신념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 4)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행동 척도는 김지신(199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지신은 박성연과 이숙(1990)의 척도 문항과 예비조사를 통해 추출해 낸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Baumrind의 이론과 가장 유사한 세 가지 양육유형 요인을 확인하였다. 세 가지 양육유형은 요인 1의 애정적-합리적지도(18문항), 요인 2의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요인 3의 허용(9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애정적-합리적 지도를 더 하며, 더 권위주의적이며, 더 허용적인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신뢰도

척도명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아버지	어머니
양육신념	인성 대비 지적성취 강조	.84	.83
	성숙 대비 환경 강조	.64	.70
	전체 대비 개인 강조	.61	.68
양육행동	애정적-합리적 지도	.84	.85
	권위주의적 통제	.66	.65
	허용	.68	.71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초중등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t-검증,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과 학교적응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인 학년, 성별, 학교성적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t-검증과 F-검증을(표 3),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표 4).

표 3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t-검증 결과, 초등학교 6학년생이 중학교 3학년생보다 전체적인 학교적응, 특히 학업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또한 t-검증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인

학교적응, 특히 교우관계에 있어서 더 잘 적응하였다. 학교성적에 따른 학교적응은 평균이 2.92(SD=.40)이며 F-검증과 후속검증으로 Scheffe 검증 결과, 학교성적 상중하 집단 간 평균 차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9.24,  $p<.001$ ). 이러한 결과는 학교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할 때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전체적응의 상관은  $r=.64$ 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양육신념의 경우, 초중등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와 모 모두 개인의 지적성취보다는 인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 모 모두 더 애정적-합리적 지도를 하고 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년, 성별, 학교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변인	집단	학교생활적응	사례 수	평균	S.D	Scheffe 검증	t or F
학년	초6학년 중3학년	학업적응	265 263	30.37 26.29	4.57 4.70		t=10.11***
	초6학년 중3학년	교우적응	264 263	29.99 29.97	4.73 4.46		t=.05
	초6학년 중3학년	학교적응(전체)	265 263	60.25 56.27	8.24 7.33		t=5.88***
성별	남자 여자	학업적응	250 278	28.19 28.48	4.87 5.24		t=-.66
	남자 여자	교우적응	249 278	28.89 30.96	4.53 4.43		t=-5.29***
	남자 여자	학교적응(전체)	250 278	56.96 59.44	8.00 7.91		t=-3.57***
학교성적	상	학교적응(전체)	109	3.19	.38	a	F=59.24***
	중		339	2.90	.36	b	
	하		71	2.60	.36	c	
	전체		519	2.92	.40		

\* $p<.05$  \*\* $p<.01$  \*\*\* $p<.001$

## 2. 초중등생의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적응

초중등생의 환경 변인인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또한 부, 모 각각의 양육신념의 세 하위 요인(요인 1-인성 대비 지적성취 강조, 요인 2-성숙 대비 환경 강조, 요인 3-전체 대비 개인 강조)과 양육행동의 세 하위요인(요인 1-애정적-합리적지도, 요인 2-권위주의적 통제, 요인 3-허용)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중등생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적응의 평균 차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93, p<.001$ ). 이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집단과 중집단 간, 또 상집단과 하집단 간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자아 존중감	1.00													
2. f신념1	-.15**	1.00												
3. f신념2	-.01	.28***	1.00											
4. f신념3	-.05	.51***	.27***	1.00										
5.m신념1	-.23**	.74***	.26***	.45***	1.00									
6.m신념2	-.02	.23***	.87***	.26***	.34***	1.00								
7.m신념3	-.11*	.47***	.26***	.84***	.56***	.33***	1.00							
8. f행동1	.30***	-.20***	.05	-.14**	-.15**	.04	-.14**	1.00						
9. f행동2	-.23***	.32**	-.05	.04	.21***	-.11*	.03	-.05	1.00					
10. f행동3	-.08	.12*	-.08	.13*	.11*	-.07	.15**	.15**	.28***	1.00				
11.m행동1	.36***	-.19***	.09	-.08	-.23***	.07	-.12*	.85***	-.07	.10	1.00			
12.m행동2	-.25***	.28***	-.09	.02	.33***	-.06	.08	.02	.84***	.32***	-.08	1.00		
13.m행동3	-.07	.14**	-.11*	.12*	.04	-.14**	.08	.12	.34***	.87***	.08	.31***	1.00	
14. 적응	.64***	-.11*	.08	.02	-.13*	.09	-.01	.29***	-.26**	-.13*	.36***	-.26**	-.11*	1.00

\* $p<.05$  \*\* $p<.01$  \*\*\* $p<.001$

1. f : 아버지 m : 어머니

2. 신념 1은 인성: 지적성취 강조, 신념 2는 성숙: 환경 강조, 신념 3은 전체: 개인 강조

3. 행동 1은 애정적-합리적 지도, 행동 2는 권위주의적 통제, 행동 3은 허용

표 5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적응(N=513)

경제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cheffe검증	F
상	37	3.13	.37	a	7.93***
중	427	2.92	.39	b	
하	49	2.79	.40	b	
전체	513	2.92	.40		

\*\*\* $p < .001$

부와 모 각각의 양육신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 모 모두 지적성취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보일 때 자녀들이 학교적응을 더 잘 하였다. 또한 부, 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는 부와 모 모두가 더 애정적-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덜 권위주의적이며 덜 허용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전체적인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성적, 자이존중감)과 가정환경 변인(가정의 경제수준, 부, 모 각각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개인적 변인인 학년, 성별, 학교성적, 자이존중감과 환경 변인인 가정의 경제수준, 부, 모 각각의 양육신념과 부, 모 각각의 양육행동 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을 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7.50$ ,  $p < .001$ ). 개인적 변인인 성별, 학교성적, 자이존중감과 환경 변인인 가정의 경제수준이 유의하였다. 즉, 여학생일 때, 학교성적이 상이라고 인식할 때, 자이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인식할 때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이존중감( $\beta=.50$ )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성적( $\beta=.23$ ), 성별( $\beta=.13$ ), 가정의 경제수준( $\beta=.07$ ) 순이었다. 학년 변인과 부모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N=448)

독립변수	B	$\beta$	t
학년	-.03	-.04	-1.18
성별	.11	.13	3.97***
학교성적	.17	.23	6.60***
자아존중감	.35	.50	13.05***
가정의 경제수준	.07	.07	1.94*
아버지 양육신념: 인성 대비 지적성취 강조	.02	.03	.56
어머니 양육신념: 인성 대비 지적성취 강조	-.01	-.02	-.32
아버지 양육행동: 애정적-합리적 지도	.01	.01	.14
어머니 양육행동: 애정적-합리적 지도	-.11	-.13	1.77
아버지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통제	.02	.02	.33
어머니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통제	-.05	-.06	-.83
아버지 양육행동: 허용	-.07	-.08	-1.14
어머니 양육행동: 허용	.01	.02	.23
상수=2.05			
		F=37.50***	R <sup>2</sup> =.53

\* $p < .05$  \*\* $p < .01$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학교성적, 자아존중감), 가정환경 변인(초중등생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 부, 모 각각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과 학교적응간의 차이점 및 상관성, 그리고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첫째,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학년(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보다), 성별(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상이라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높을수록)과 학교적응 간에 유의한 차이점과 상관성이 있었다. 둘째, 초중등생의 환경 변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상이라고 지각할 때), 양육신념(부, 모 모두 지적성취보다 인성을 강조할 때)과 양육행

동(부, 모 모두 더 애정적-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덜 권위적일수록, 덜 허용적일수록)과 학교적응 간에 유의한 차이점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이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을 53% 설명하였다( $F=37.50$ ,  $p<.001$ ). 개인적 변인인 성별(여학생일 때), 학교성적(상이라고 인식할 때), 자아존중감(높을수록)과 환경 변인인 가정의 경제수준(상이라고 인식할 때)이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학교성적,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학년변인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변수들에 의한 본 모형의 설명력은 초중등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별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학년이 낮을 때(초 6학년) 전체적인 학교적응, 특히 학업적인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인 학교적응, 특히 교우관계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능하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서도 갈등이 적고, 학업능력도 뛰어나다는 연구(이용준, 박경자, 2005; 이정은, 2012; Dixon, 2002)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 특성이나 환경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장소현, 2009; 정미영, 문혁준, 2007)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이지미, 201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성별과 학교 적응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성적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분석 결과, 성적이 상이라고 지각할 때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김영희와 강혜원(2007)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r=.64$ ,  $p<.001$ ), 이는 김순혜(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은 부, 모의 양육신념 중 요인 1(인성 대비 지적 성취 강조)이나 양육행동중 요인 1(애정적-합리적 지도)과 요인 2(권위주의적 통제)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이 변인들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도 추후 연구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초중등생의 환경 변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 모 모두 양육

신념 중 지적성취보다는 인성을 강조할수록 초중등생이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신념 요인 2(성숙 대비 환경 강조)와 요인 3(전체 대비 개인 강조)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지향하는 양육신념이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혜진, 2011; Darling & Steinberg, 1993) 양육신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 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분석결과, 양육행동 요인 1인 애정적-합리적 지도, 요인 2인 권위주의적인 통제, 요인 3인 허용 모두에서 초중등생의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와 모 모두가 더 애정적-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덜 권위적일수록, 덜 허용적일수록 초중등생은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애정과 적은 갈등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높을 때, 학교적응과 관련된 높은 자아존중감(Wilkinson, 2004), 친사회적 행동(Sturgess, Dunn & Davies, 2001), 낮은 스트레스 행동(Fishman & Meyers, 2000)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가족 관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특히 그들의 문제행동과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예측한다는 Hakvoort, Bos and Hermanns(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녀의 성장발달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양육행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보여 주었다. 이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 또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버지도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권위보다는 관심과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 자유로운 표현과 탐색을 허용하는 행동, 칭찬과 격려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애정적-합리적인 행동이 요구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인식할 때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적응과 가정의 경제수준은 유의한 상관 없이 없었으나, 학업적응의 경우 특히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정미영, 문혁준, 2007; 정숙형, 2012) 결과와 일치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의 수입이라는 견해(Mistry, Biesanz, Chien, Howes & Benner,

2008)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득이 전반적인 아동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학교적응을 아동교육에 투자할 부모능력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연구(김수정, 곽금주, 2012)에서와 같이 과거와 달리 학원비나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을 감안하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으면 이에 따른 사교육비 지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업적응을 더 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초중등생의 개인적 변인(학년, 성별, 학교성적,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변인(가정의 경제수준, 부, 모 각각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이 변인들이 모두 투입되었을 때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을 53% 설명하였다( $F=37.50$ ,  $p<.001$ ). 개인적 변인인 성별, 학교성적, 자아존중감과 환경변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일 때, 학교성적이 상이라고 인식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때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학교성적, 성별과 가정의 경제수준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본 연구는 초중등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 모와 관련된 환경적 변인보다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부, 모의 양육행동의 세 하위요인이 모두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개인적 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가정 밖의 영향력에 더 노출되므로 자녀의 학업적응과 같은 수행능력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신념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아동의 내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기능한다는 Knight(1981)의 견해와 일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같이 지나친 경쟁구도 속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환경보다는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연구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Lim & Lee, 2007)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과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중학교 3학년이라는 전환기에 자아존중감이 두 시기의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공통적인 변인으로 규명됨에 따라 이 변수를 활용하여 이들이 학업적응이나 교우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학생들이나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이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과 함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성적 또한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이므로 성적향상을 위한 방법의 모색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이 다름을 인지하고 성차를 고려한 적응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가정의 경제수준도 의미 있는 예측변인으로서 입시위주의 사회에서 학원이나 개인과의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일부 지역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표집 대상의 확대와 확률적 표집방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의미 있는 타자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가족, 친구, 교사 중 친구나 교사와 관련된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변인이 학교적응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지지나 교사의 신념과 태도와 같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다른 예언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자인 학생이 부, 모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양육신념 및 양육행동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초등학교 6학년과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중학교 3학년이라는 발달과업 전환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과 환경 변인인 부, 모 각각을 함께 고려한 연구를 했다는 점,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이 밝혀진 학년 변인을 포함한 본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53%였다는 점, 그 중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두 시기의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인을 밝혀냄으로써 학교나 교육관련 기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분, 최연실 (2012).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또래 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50(1), 1-13.
- 김수정, 광금주 (2012).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3), 85-105.
- 김순혜 (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인간 발달연구**, 17(4), 1-18.
- 김연화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강혜원 (2007).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 학교학습동기와 학교적응 및 성적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10, 187-216.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류민정 (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128.
- 박상희 (2010).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성연, 이은경 (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29.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0), 65-78.
- 방수산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진 (2011).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신념에 따른 양육행동**.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연승 (1998).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중·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희옥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희 (2011). 학년 초기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12(5), 1779-1791.
- 이용준, 박경자 (2005).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1), 329-345.
- 이월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이정은 (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정소조절양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미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경문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에 따른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적의 차이**. *초등교육연구*, 20(1), 165-179.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지*, 18(2), 243-261.
- 장미애 (2004).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소현 (2009).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모 양육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숙형 (2012).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건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라 (1997).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희진 (2012). **부모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rndt, T. J., & Keefe, K. A. (1995). Friends'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Bornstein, M., & Cote, L. (2004). Mothers' parenting cognitions in cultures of origin, acculturating cultures, and cultures of destination. *Child Development, 75*(1), 35-4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 D. A., Maxwell, S. E., & Martin, J. A.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y Bulletin, 113*, 487-496.
- Dixon, S. J. (2002). *Attitudes that reflect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coping responses and protective factors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o, K. H. (2008). A study of father related variable influenc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5), 861-872.
- Fishman, E. A., & Meyers, S. A. (2000).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adjustment: Direct and mediated pathway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2*, 437-452.
- Gifford-Smith, M. E., & Brownell, C. A. (2003).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Social acceptance, friendships, and peer network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4), 235-284.
- Hakvoort, E. M., Bos, H. M. W., & Hermans, J. A. (2010).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in Intact Famil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2*(2), 182-201.
- Knight, R. (1981). Parents' beliefs and cognitive development: The role of experience. In A. R. Nesdaile, C. Pratt, R. Grieve, J. Field, D. Illingworth, & J. Hogben (Ed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research. Theory and research* (pp.226-229). Perth: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im, S. K., & Lee, H. S. (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69-183.
- Mistry, R. S., Biesanz, J. C., Chien, N., Howes, C., & Benner, A. D. (2008).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investments, and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of low-income children from immigrant and native househol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193-2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K., & Chung, O. (2006).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 Siegel, I.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e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345-371). Hillsdale, NJ: LEA.
- Simons-Morton, B. G.,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 Sturgess, W., Dunn, J., & Davies, L. (2001). Young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family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Links with family setting, friendships, and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 521-529.
- Swann, W. B., Chang-Schneider, C., & McClarty, K. L. (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62(2), 84-94.
- Uhrlass, D. J., Grosser, S. E., & Gibb, B. E. (2008). Self-perceived competence,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Evidence for a sex-specific vulnerability-stres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1(4), 284-297.

Weiten, W., Dunn, D. S., & Hammer, E. Y. (2012).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Adjustment in the 21st Century* (10th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479-493.

## ABSTRACT

###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sup>th</sup> and 9<sup>th</sup> grade Korean students

Park, Sunghae\* · Yoon, Chongh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sup>th</sup> and 9<sup>th</sup> graders. A total of 540 Korean students answer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on questions related to their age, sex, GPA,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family's economic status, beliefs and behaviors of their mothers and fathers, respectively. Regression analysis was then performed and indicated that the model explained 53% of school adjustmen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children's self-esteem, followed by GPA, sex, family's economic status. In order to improve the school adjustment of these age groups, it was suggested to implement intervention-programs designed to enhance the self-esteem of stu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parenting belief, parenting behavior

투고일 : 2013. 6. 10, 심사일 : 2013. 8. 1, 심사완료일 : 2013. 8. 12

---

\* Researcher, KCCEB(Korean Community Center of the East Bay)

\*\*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